

## 제16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개최결과

1. 회의일시 : 2015년 3월 19일(목) 09:30 ~ 15:30
2. 회의장소 : 롯데호텔서울(소공동) 2F 에메랄드룸
3. 주최기관 : (사)한일경제협회, (사)한국무역협회, (일사)일한경제협회
4. 참가자 : 총 76명, 명단 별첨
  - 한국측 : 안종원 체어맨(한국무역협회 비상근 부회장) 등 42명
  - 일본측 : 아소 유타카 체어맨(아소시멘트 사장) 등 34명
5. 회의주제 : 제47회 경제인회의 논의 사항의 구체적 실현방안 논의
  - 세션1 : 동반성장을 위한 한일 정책공조(금융·환율·FTA 등)
  - 세션2 : 한일 하나의 시장화를 위한 협력방안(정보통신·3국협업)
  - 세션3 : 평창동계올림픽·도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한일협력과 새로운 50년을 향한 상호협력
6. 회의 개최결과

□ 한일경제인회의에 논의의제를 상정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로서, 새로운 50년을 맞이하는 2015년을 계기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, 한일 주도에 의한 아시아의 경제통합을 향한 새로운 동반성장·공동번영의 협력방안을 제시

- ①금융·환율·FTA와 관련된 한일 정책공조
- ②한일 양국의 현 주소와 한일의 협력과제  
(정보·분석공유, 벨류체인 상호보완, 경제제휴 협정, 의료·요양보호 등)
- ③정보통신(ICT)의 한일연계(교통·통신결제 연계, 사물·만물인터넷 연계 등)
- ④제3국 공동진출 강화(자원에너지, 인프라건설, 제조업 등)
- ⑤평창동계올림픽·도쿄올림픽 개최 상호협력(해외관광객 공동유치, 공동 표기 표준화, 一校一國운동 등)
- ⑥한일 차세대교류 확대(고교생·대학생·인턴십, 차세대경영자 교류 등)
- ⑦고령화사회의 의료·요양보호 협력
- ⑧한일경제협력지수의 상승 환경조성 등 (잠재력 대비 경제협력성과 향상을 위한 노력)

**1 동아시아지역의 금융협력 추진실적과 전망에 대해 살펴보고, 한일 간 금융 협력 증진방안 및 기타 주요 협력과제를 제시**

- 한일 양국이 아시아지역의 금융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추진하는 것이 양국 금융정책 협력의 시발점
  - 아시아통화기금의 탄생, 스왑협정의 부활
  - 금융을 포함한 거시경제정책 공조를 위한 노력 강화 및 상호신뢰 제고(양국 재무장관 회담의 재개), 금융부문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양국 감독기관의 협조강화 등
-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한·미·일·EU의 비중은 저하하는 추세로, 민주주의와 시장주의, 적은 자원, 저출산고령화 등의 공통성을 가지고 있는 한일 양국의 협력이 절실
  - 정보공유와 분석공유(기후·자연재해 정보, 질병정보, 테러정보 등), 산업·기술 분야의 표준화, 높은 자유도의 경제연계협정, 의료·요양보호 협력 등

**2 한일 양국의 정보통신(ICT) 연계방안 및 제3국 공동진출 미션(미얀마) 보고 등을 통해 한일 하나의 시장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제시**

- 일본의 스마트재팬 ICT 전략(ICT 글로벌 경쟁력강화 프로젝트)과 한국의 ICT 기반 국제협력 방안을 분석하여 양국 ICT 전략의 연계가능성을 모색
  - 교통·통신결제 연계, 자동차의 ICT화, 방재, IoT(사물인터넷)·IoE(만물인터넷) 연계 등
- 7년만에 재개된 한일재계회의와 일본측 대표단의 VIP 예방에서 제3국으로의 한일 공동진출 확대의 중요성이 강조됨
  - 한일재계회의에서 양국 재계대표는 제3국에서의 인프라정비와 관련된 협업에 대해 의견을 교환
  - 재계회의에 참가한 일본측 대표단은 VIP를 예방하였으며, 제3국으로의 한일 공동진출 확대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
- 2015.2월 파견된 한일 양국 미얀마 미션단은 미얀마 정부의 경제발전을 위한 강한 의지를 확인하고, 한일협업 분야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함을 제시

**③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·2020년 도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 
한일협력 방안과,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50년을 향한 상호협력 증진방안을  
제시**

- 평창동계올림픽·도쿄올림픽은 **한일관계 개선의 절호의 기회**이며 **국가 재생의 기회** 이므로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협력방안을 제시
  - 관광객 증대노력(한일을 패키지로 묶는 중국관광객 유치전략 협력), 한중일 공동표기 표준화(한자통일, 픽토그램, 고령친화용품, 교통카드), 동아시아협력 체제 구축의 초석을 위한 정상회담 정례화 등
- 새로운 50년을 향한 미래지향적인 상호협력 방안으로 **한일 차세대교류**와 **한일 공통의 과제인 고령화사회의 의료·요양보호 협력**을 제시
  - 한일고교생교류캠프(글로벌 청년인재육성사업), 한일학생미래회의(대학생) → 한일 양국 경제협회가 공동시행
  - **인턴십 실습 프로그램**(한국대학생 대상), **차세대 경영자 교류사업**(한일 중소기업 차세대 경영자를 대상)을 실시할 계획
  - 고령화라는 사회문제는 요양보호체계의 진화와 함께 로봇산업이 발전하는 등 **새로운 산업의 출발점**이 될 것으로 예상
- 한일 양국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선진국으로서 지속 가능한 연계를 할 수 있는 국가이므로 협업 시 시장개방·폐쇄의 문제가 아닌 산업 구조를 변화시킨다는 관점에서 접근
- 상호 인재교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전 장학금제도 및 사후 장학금제도의 수정 등이 필요

**④ 한일경제협력의 정도와 수준을 객관적이며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서  
한일경제협력지수의 개념과 산정방법, 산정결과, 시사점 등을 제시**

- 경제협력지수(ECI)가 100에 못 미치는 86.55를 기록한 것은 한일경제협력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결과이며, 기업은 물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